

# 청소년기 주거환경경험의 정서적 의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motional Implication of Memorable Adolescent Experience into Housing Environment

김진화\*                      이윤정\*\*                      정준현\*\*\*  
Kim, Jin-Hwa              Lee, Youn-Jung              Jeong, Jun-Hyun

###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henomenologically look into residential behaviors from the standpoint of human housing environment experiences, rather than physical environment, aiming to examine the emotional implication of housing environment by finding human mental motives included in memorable adolescent experiences into housing environment.

In this study, an analysis on an environment life story was used to describe both the behaviors and spaces of significantly memorable experiences into housing environment. In addition,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analysing the emotional implication of descriptions selected from respondents' answers. A questionnaire survey was performed by questioning the students of D university about their significantly memorable adolescent experience in housing environment from the 4th to 15th of June 2007. Statistic date was analysed using the SPSS 14.0 Program.

**키워드** : 청소년, 주거환경경험, 기억, 정서적 의미

**Keywords** : Teenagers, Experience of Housing Environment, Memory, Emotional Implication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현대의 주거환경은 기술문명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물리적 질의 향상을 우선시해왔고, 이에 따라 주거환경 계획에 있어 본질적인 측면은 간과되어 왔다. 하지만 주거는 그 장소에 대한 인간의 애착과 기억이 없는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다. 여기에서 기억이란 우리가 인식했던 과거 시간의 분절로서, 주입된 기억보다 평소의 일상적인 환경에서 인식된 기억들이 더 깊은 감흥을 주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주거환경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보다는 인간의 경험적 측면에서의 거주행위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로서, 청소년기 주거환경경험들 중 의미 있는 기억 즉, 추억을 통해 주거환경 속에 담긴 인간의 심리적 단서를 찾아 주거환경의 정서적 의미를 고찰함에 목적을 두었다. 이는 현대 주거 계획에 있어서 주거환경의 본질적 의미를 조명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기 주거환경경험의 정서적 의미에 대해 실증적이고 객관화된 설명보다는 근원적이고 인식적인 경험의 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환경자서전법을 사용하였고, 2007년 6월 4일~15일, D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주거환경경험의 공간과 그 행위에 대한 자유로

운 서술로 이루어졌다. 이 중 유효한 14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자들의 서술내용에서 감정 동사들을 추출하여 정서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감정 동사들은 크게 만족과 불만족의 의미영역<sup>1)</sup>으로 분류하여 주거환경경험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통계적 자료 분석은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현상학적 관점과 주거

현상학이란, 서구 철학의 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상으로 본질들에 대한 탐구이다. 현상이란 경험을 말함으로, 현상학이란 경험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며 체험적 의미를 우리가 겪은 그대로 기술한다.

현상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주거는 장소나 건물의 의미보다 그것이 생활과 결합하여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주거경험 또는 주관적 인식의 문제를 포함하는 '인간과 환경과의 심리적, 체험적 관계'라 정의할 수 있다.<sup>2)</sup> 여기에서 '주거경험'이란 주거환경을 자극으로 보고 그 자극에 대응하여 반응되는 과정을 말하며, 또한 그러한 반응이 과거로부터 축적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3)</sup> 이러한 경험들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주택을 짓거나 선택, 장식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태도와 가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sup>4)</sup>

\* 대구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공학박사

\*\*\* 대구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교수, 공학박사

1) 김은영(2004), 국어감정동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3-123

2) Dovey, K. (1985), Home & Homelessness, In Altman, I. & Werner, C. M. (Eds), Home Environments. NY: Plenum.

3) 박은선(1989), 주거환경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Tognoli, J. & Horwitz, J. (1982). From Childhood Home to Adult Home,

## 2. 주거환경의 정서적 경험

일반적으로 정서란 기쁨, 슬픔, 노여움 따위의 관념에 따라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을 일컫는 것이다. 보링(Boring)은 정서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반응의 결과로써 여러 가지 변화하는 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라고 정의하였다.<sup>5)</sup> 우리들의 생활은 기쁨과 슬픔, 희망과 실망, 그리고 사랑과 공포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정서가 한데 엉켜져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자면 심상이나 기억과 같은 내적자극 때문에 정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sup>6)</sup> 그러므로 이러한 내적 자극으로써의 주거환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서적 경험이라는 개념아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조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들의 청소년기 거주특성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142부이며, 조사대상자들의 청소년기 거주특성은 표1과 같다.

표1. 조사대상자들의 청소년기 거주특성 (N=142)

구분		N	%
성별	남	49	34.5
	여	93	65.5
거주지역	대도시	78	54.9
	중·소도시	33	23.2
	농·어촌	31	21.8
거주형태	단독주택	58	40.9
	아파트	64	45.1
	상가주택	9	6.3
	기타	11	7.7
소유형태	자가	119	83.8
	전세	17	12.0
	월세	4	2.8
	기타	2	1.4
개인성격	진취적	21	14.8
	낙천적	65	45.8
	보수적	22	15.5
	현실적	27	19.0
	체념적	7	4.9

### 2. 청소년기 주거환경경험에 대한 평가

성격이나 학업성적에 있어 주거환경의 영향력 인식 정도는 그림1과 같다. 주거환경은 성격형성에 있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답이 59.2%, 학업성적에 있어서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답이 52.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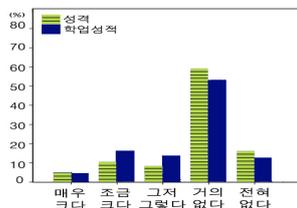


그림1. 주거환경영향력인식정도

EDRA, 13, 321-328

5) 김창걸(1990), 교육학 신강, 교육과학사, 164

6) 김만희(2002), 전통주택공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특성의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한서대 석사학위논문, 4-6

다음으로 청소년기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 29쌍의 형용사 어휘를 선정하여 파악된 청소년기 주거환경 이미지는 그림2와 같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정서적 느낌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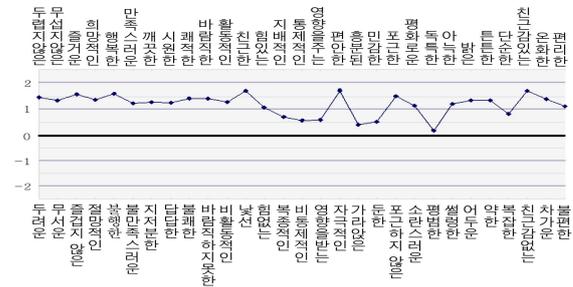


그림2. 청소년기 주거환경의 정서적 느낌

### 3. 주거환경경험의 공간적 특성

본 연구에서 주거환경은 크게 주거내부와 주거외부로 구분하였고, 각 장소별 주거환경경험빈도<sup>7)</sup>는 표2와 같다. 주거내부 공간에서는 내 방 83.1%, 거실 77.5%, 부엌 62.7%, 안방 58.5%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거외부 공간에서는 옥상 50.0%, 놀이터 47.9%, 마당 40.1%의 순으로 의미 있는 주거환경경험의 공간이 분석되었다. 그래서 주거내부에서는 내방, 거실, 부엌, 안방을, 주거외부에서는 옥상, 놀이터, 마당을 대표적 공간으로 하여 그 정서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표2. 장소별 경험 빈도

구분	N	%	구분	N	%	
						주거내부
내방	118	83.1	주차장	36	25.4	
거실	110	77.5	단지내시설	26	18.3	
부엌	89	62.7	골목길	22	15.5	
안방	83	58.5	화단	20	14.1	
동생방	48	33.8	외부계단	19	13.4	
베란다	47	33.1	공원	17	12.0	
화장실	39	27.5	뒤뜰	14	9.9	
할머니방	18	12.7	집앞공터	14	9.9	
다용도실	8	5.6	뒷밭	12	8.5	
주거외부	옥상	71	50.0	엘리베이터	12	8.5
놀이터	68	47.9	복도	11	7.7	
마당	57	40.1				

\* 주거환경경험의 장소는 중복선택 가능하였음.

### 4. 주거환경경험의 행위적 특성

주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취침, 식사, 학습, 응접, 놀이, 단란, 휴식, 의례 등의 8가지로 분류하였고, 주거환경경험의 행위별 빈도는 주거내부와 주거외부로 구분하였다.

주거내부에서의 주거환경경험 행위별 빈도는 표3과 같다. 우선 의미 있는 주거환경경험의 행위는 놀이와 단란, 취침, 식사, 휴식, 학습, 응접, 의례 행위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행위가 어떤 장소에서 주거환경경험으로써

7) 주거 내·외부로 분류된 주거환경경험 공간들 중, 장소별 경험빈도가 5% 미만인 것은 표2에서 제외하였고, 제외한 장소들은 다음과 같다.

- 주거내부 : 내부계단(0.7%), 드레스룸(1.4%), 사랑방(2.1%), 다락방(2.8%), 골방(3.5%), 공부방(3.5%)
- 주거외부 : 현관(2.1%), 경비실(2.1%), 외부화장실(3.5%), 외부창고(4.2%)

많이 인식되었는지 분석해본 결과, 취침행위는 내방(50.7%)에서, 식사행위는 부엌(81.5%)에서, 학습행위는 내방(76.3%)에서, 응접행위는 거실(54.5%)에서, 놀이 행위는 내방(38.2%)과 거실(37.2%)에서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분석되었으며, 단란 행위는 거실(51.1%), 휴식 행위는 거실(40.0%)과 내방(37.7%)에서, 의례행위는 거실(75.0%)에서 이루어진 경험이 많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주거내부의 주거환경경험 행위별 빈도

행위	장소		내방		거실		부엌		안방		합계	
	N	%	N	%	N	%	N	%	N	%	N	%
	취침	33	50.7	18	27.6	2	3.0	12	18.4	65	100	
식사	2	3.0	9	13.8	53	81.5	1	1.5	65	100		
학습	29	76.3	3	7.8	2	5.2	4	10.5	38	100		
응접	3	27.2	6	54.5			2	18.1	11	100		
놀이	39	38.2	38	37.2	9	8.8	16	15.6	102	100		
단란	10	11.3	45	51.1	11	12.5	22	25.0	88	100		
휴식	17	37.7	18	40.0	1	2.2	9	20.0	45	100		
의례			6	75.0	1	12.5	1	12.5	8	100		

\* 주거환경경험의 행위는 중복선택 가능하였음.

주거외부에서의 주거환경경험 행위별 빈도는 표4와 같다. 우선 의미 있는 주거환경경험의 행위는 놀이, 휴식, 식사, 단란, 응접, 취침, 의례, 학습 행위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행위가 어떤 장소에서 주거환경경험으로써 많이 인식되었는지 분석해본 결과, 취침행위는 옥상(100%)에서, 식사행위는 옥상(50.0%)과 마당(50.0%)에서, 학습행위는 옥상(50.0%)과 놀이터(50.0%)에서, 응접 행위는 놀이터(58.3%)에서, 놀이 행위는 놀이터(42.7%)에서, 단란 행위는 옥상(53.8%)에서, 휴식 행위는 옥상(82.3%)에서, 의례 행위는 옥상(50.0%)과 놀이터(50.0%)에서 이루어진 경험이 많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주거외부의 주거환경경험 행위별 빈도

행위	장소		옥상		놀이터		마당		합계	
	N	%	N	%	N	%	N	%	N	%
	취침	5	100							5
식사	7	50.0			7	50.0			14	100
학습	1	50.0	1	50.0					2	100
응접	3	25.0	7	58.3	2	16.6			12	100
놀이	27	28.1	41	42.7	28	29.1			96	100
단란	7	53.8	1	7.6	5	38.4			13	100
휴식	14	82.3	3	17.6					17	100
의례	2	50.0	2	50.0					4	100

\* 주거환경경험의 행위는 중복선택 가능하였음.

## 5. 주거환경경험의 정서적 의미

### 1) 주거내부공간에서의 정서적 의미

주거내부공간에서 인식된 경험에 대한 정서적 의미는 표5와 같다. 내방에서는 취침과 놀이에 대한 '좋아함'의 의미를 정서적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고, 거실에서는 놀이와 단란 행위에 대한 '기쁨'과 '좋아함'의 의미를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다. 부엌에서는 식사에 대한 '기쁨'과 '좋아함'의 의미를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고, 안방에서는 단란 행위에 대한 '기쁨'과 '좋아함'의 의미를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다. 또한 안방에서는 놀이 행위에 대한 '두려움'(69.2%)의 의미도 많이 인식하고 있어서 주거 내

부의 다른 주요 실들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적 의미로도 많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5. 주거내부공간에서의 정서적 의미 N(%)

구분	만족			동정	수치심	노여움	불만족				합계		
	기쁨	좋아함	계				슬픔	두려움	싫어함	바람		계	
내방	취침	4 (14.8)	12 (44.4)	16 (59.2)		2 (7.4)	1 (3.7)	5 (18.5)	2 (7.4)	1 (3.7)	11 (40.7)	27 (100)	
	학습	4 (23.5)	7 (41.1)	11 (64.6)			2 (11.7)	1 (5.8)	2 (11.7)	1 (5.8)	6 (35.0)	17 (100)	
	응접							3 (100)			3 (100)	3 (100)	
	놀이	3 (14.2)	9 (42.8)	12 (57.0)		1 (4.7)	4 (19.0)	2 (9.5)		2 (9.5)	9 (42.7)	21 (100)	
	단란	2 (20.0)	4 (40.0)	6 (60.0)			2 (20.0)		2 (20.0)		4 (40.0)	10 (100)	
	휴식	2 (15.3)	9 (69.2)	11 (84.5)			2 (15.3)				2 (15.3)	13 (100)	
	계	15 (16.5)	41 (45.1)	56 (61.6)		1 (1.1)	2 (2.2)	11 (12.1)	11 (12.1)	6 (6.6)	4 (4.4)	35 (38.4)	91 (100)
거실	취침	1 (14.2)	3 (42.8)	4 (57.0)			1 (14.2)	2 (28.5)			3 (42.7)	7 (100)	
	식사	1 (25.0)	3 (75.0)	4 (100)								4 (100)	
	학습	1 (100)		1 (100)								1 (100)	
	응접								1 (100)		1 (100)	1 (100)	
	놀이	8 (38.0)	6 (28.5)	14 (66.5)			3 (14.2)	3 (14.2)	1 (4.7)		7 (33.1)	21 (100)	
	단란	12 (42.8)	12 (42.8)	24 (85.6)			1 (3.5)			3 (10.7)	4 (17.7)	28 (100)	
	휴식		6 (83.7)	6 (83.7)					1 (14.2)		1 (14.2)	7 (100)	
계	24 (33.8)	31 (43.7)	55 (77.5)				5 (7.0)	5 (7.0)	3 (4.2)	3 (4.2)	16 (22.5)	71 (100)	
부엌	취침		1 (100)	1 (100)								1 (100)	
	식사	10 (31.3)	9 (28.1)	19 (59.4)			2 (6.2)	3 (9.3)	7 (21.8)	1 (3.1)	13 (40.4)	32 (100)	
	학습	1 (33.3)	1 (33.3)	2 (66.6)					1 (33.3)		1 (33.3)	3 (100)	
	놀이		2 (22.2)	2 (22.2)	1 (11.1)				5 (55.5)	1 (11.1)	6 (77.7)	9 (100)	
	단란	3 (42.8)	2 (28.5)	5 (71.3)					1 (14.2)	1 (14.2)	2 (28.4)	7 (100)	
	휴식	1 (50.0)		1 (50.0)						1 (50.0)	1 (50.0)	2 (100)	
	계	16 (29.1)	15 (27.3)	31 (56.4)	1 (1.8)		2 (3.6)	3 (5.5)	14 (25.5)	3 (5.5)	1 (1.8)	24 (43.6)	55 (100)
안방	취침	1 (12.5)	1 (12.5)	2 (25.0)				1 (12.5)	3 (37.5)	2 (25)	6 (74.5)	8 (100)	
	학습	2 (100)		2 (100)								2 (100)	
	놀이	1 (7.6)		1 (7.6)				2 (15.3)	9 (69.2)	1 (7.6)	12 (92.1)	13 (100)	
	단란	3 (17.6)	2 (11.7)	5 (29.3)			4 (23.5)	4 (23.5)	2 (11.7)	1 (5.8)	1 (5.8)	12 (70.3)	17 (100)
	휴식		4 (100)	4 (100)								4 (100)	
	계	7 (15.9)	7 (15.9)	14 (31.8)			4 (9.1)	7 (15.9)	14 (31.8)	4 (9.1)	1 (2.3)	30 (68.2)	44 (100)

### 2) 주거외부공간에서의 정서적 의미

주거외부공간에서 인식된 경험에 대한 정서적 의미는 표6과 같다. 옥상에서는 놀이행위에 대한 '기쁨'과 '좋아함'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휴식행위에 대한 '기쁨'과 '좋아함'의 의미를 많이 인식하고 있다. 놀이터에서는 놀이 행위에 대한 '기쁨'과 '좋아함'의 의미를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마당에서도 또한 놀이에 대한 '기쁨'과 '좋아함'의 의미를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주거외부공간에서의 정서적 의미 N(%)

구분	만족			불만족							합계			
	기쁨	좋아함	계	동정	수치심	노여움	슬픔	두려움	싫어함	바람		계		
옥상	취침	2 (50.0)	1 (25.0)	3 (75.0)	.	.	.	1 (25.0)	.	.	.	1 (25.0)	4 (100)	
	식사	2 (33.3)	4 (66.6)	6 (99.9)	.	.	.	.	.	.	.	.	6 (100)	
	학습	.	.	.	.	.	.	.	1 (100)	.	.	.	1 (100)	
	응접	2 (66.6)	.	2 (66.6)	.	.	.	.	1 (33.3)	.	.	.	3 (100)	
	놀이	9 (45.0)	4 (20.0)	13 (65.0)	.	.	.	2 (10.0)	4 (20.0)	1 (5.0)	.	.	7 (35.0)	20 (100)
	단란	2 (40.0)	3 (60.0)	5 (100)	.	.	.	.	.	.	.	.	.	5 (100)
	휴식	3 (23.0)	6 (46.1)	9 (69.1)	1 (7.6)	.	.	1 (7.6)	1 (7.6)	1 (7.6)	.	.	4 (30.4)	13 (100)
	의례	.	1 (50.0)	1 (50.0)	.	.	.	.	1 (50.0)	.	.	.	1 (50.0)	2 (100)
계	20 (37.0)	19 (35.2)	39 (72.2)	1 (1.9)	.	.	4 (7.4)	8 (14.8)	2 (3.7)	.	.	15 (27.8)	54 (100)	
놀이터	응접	1 (16.6)	3 (50.0)	4 (66.6)	.	.	1 (16.6)	1 (16.6)	.	.	.	2 (33.2)	6 (100)	
	놀이	9 (30.0)	8 (26.6)	17 (56.6)	.	1 (3.3)	.	4 (13.3)	5 (16.6)	2 (6.6)	1 (3.3)	13 (43.1)	30 (100)	
	휴식	1 (50)	1 (50)	2 (100)	.	.	.	.	.	.	.	.	2 (100)	
	의례	2 (100)	.	2 (100)	.	.	.	.	.	.	.	.	2 (100)	
계	13 (32.5)	12 (30.0)	25 (62.5)	.	1 (2.5)	1 (2.5)	5 (12.5)	5 (12.5)	2 (5)	1 (2.5)	1 (2.5)	15 (37.5)	40 (100)	
마당	식사	3 (50.0)	2 (33.3)	5 (83.3)	.	.	.	.	1 (16.6)	.	.	1 (16.6)	6 (100)	
	응접	1 (50.0)	1 (50.0)	2 (100)	.	.	.	.	.	.	.	.	2 (100)	
	놀이	10 (37.0)	7 (25.9)	17 (62.9)	.	.	1 (3.7)	2 (7.4)	6 (22.2)	.	1 (3.7)	10 (37.0)	27 (100)	
	단란	1 (20.0)	3 (60.0)	4 (80.0)	.	.	.	1 (20.0)	.	.	.	1 (20.0)	5 (100)	
계	15 (37.5)	13 (32.5)	28 (70.0)	.	.	1 (2.5)	3 (7.5)	6 (15.0)	1 (2.5)	1 (2.5)	1 (2.5)	12 (30.0)	40 (100)	

6. 청소년기 거주특성과 정서적 느낌과의 상관성

청소년기 거주특성과 정서적 느낌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7과 같다.

거주특성 중 성별과 거주형태는 정서적 느낌과 통계적으로 상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거주 지역은 '두려운' 정서적 느낌에 정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말해 농어촌보다는 대도시에서 두려운 느낌에 대해 더 많은 정서적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소유형태에서는 '자극적인', '지저분한', '소란스러운', '불편한', '복잡한' 정서적 느낌에 부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고, '둔한', '평범한' 정서적 느낌에 정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소유형태가 차가인 경우보다 자가인 경우가 '자극적인' 보다 '편안한', '지저분한' 보다 '깨끗한', '소란스러운' 보다 '평화로운', '불편한' 보다 '편리한', '복잡한' 보다 '단순한' 정서적 느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성격에서는 '어두운', '불편한', '불쾌한', '즐겁지 않은', '불행한', '불만족스러운' 정서적 느낌과 부적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체념적인 청소년에 비해 진취적인 청소년이 '어두운' 보다 '밝은', '불편한' 보다 '편리한', '불쾌한' 보다 '쾌적한', '즐겁지 않은' 보다 '즐거운', '불행한' 보다 '행복한', '불만족스러운' 보다 '만족스러운' 정서적 느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표7. 청소년기 거주특성과 정서적 느낌과의 상관성

거주특성	주요 정서적 느낌
성별	n.s
거주지역	두려운(.185)*
거주형태	n.s
소유형태	자극적인(-.271)*, 지저분한(-.262)**, 소란스러운(-.173)*, 불편한(-.214)*, 복잡한(-.167)*, 둔한(.211)*, 평범한(.214)*
개인성격	어두운(-.181)*, 불편한(-.203)*, 불쾌한(-.185)*, 즐겁지 않은(-.187)*, 불행한(-.187)*, 불만족스러운(-.250)**

\*p <.05, \*\*p <.01

IV.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 주거환경의 기억에 대한 의미 있는 공간과 행위, 그리고 그 정서적 의미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청소년기에 의미 있는 주거환경경험의 공간은 주거내부에서는 내방, 거실, 부엌, 안방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거외부에서는 옥상, 놀이터, 마당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기에 의미 있는 주거환경경험의 행위는 주거내부에서는 놀이, 단란, 취침, 식사 행위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거외부에서는 놀이 행위가 다른 행위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기 주거환경경험에 대한 정서적 의미는 주거내부에서 내방, 거실, 부엌에서 대체적으로 만족적인 의미로 분석되었으나, 예외적으로 안방에서는 취침, 놀이, 단란 행위에 대한 불만족적인 정서적 의미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님께 주로 야단을 맞거나 하는 등의 경험에 대한 감정이 정서적으로 기억에 남은 것으로 이해된다. 주거외부에서는 옥상, 놀이터, 마당에서 기쁨과 좋아함에 대한 기억이 많아 대체적으로 만족적인 의미로 분석되었다.

넷째, 청소년기 거주특성 중 '주택소유형태'와 '개인성격'은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 느낌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형태가 차가보다는 자가의 경우 긍정적인 정서적 느낌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개인성격의 경우 체념적 청소년보다는 진취적인 청소년이 주거환경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정서적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통하여 청소년기 주거환경경험은 개인의 정서와 심리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김원필(2002), 아동기 주거환경의 정서적 경험이 현 거주공간의 개인 영역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8권 8호
2. 손세관(1990), 주거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6권 2호
3. 이연숙, 장윤정(2003), 주거환경의 경험적 측면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9권 3호
4. 정준현(2000), 유년기 주거환경의 정서적 영향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1권 4호
5. 주영순(1996), 청소년의 주거가치유형과 주거만족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6. 최목화, 최병숙(2003), 아동이 기억하는 주거환경의 이미지 요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9권 9호